

연기백의
()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

작업 연대기

연기백(延伎栢, 1974~)은 2000년 서울대학교 조소과와 2007년 동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하였다. 2007년 첫 개인전 《더딤과 기다림》을 시작으로 2023년 《앓음과 일어섬의 상(象)에 대하여》까지 14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8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하면서 조각가, 설치미술가로서의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작업을 관통하는 조형 방법에 대한 탐구는 학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소과 재학 초기 구상 작업을 하면서 조각과 소조의 기본 과정을 밟았지만, 버려지고 폐기된 재료를 수집하여 재료적인 물질이나 형태에 반응하는 작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두상>(1996), <소리>(1997), <변화>(1997) 연작, <탈(腕)>(1998), <자연을 향한 염원>(1998) 등을 제작하였고, 재료에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힘을 가하거나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하는 실험 및 신체가 대상에 개입하는 퍼포먼스, 사운드 조각, 설치 등 전통 조각의 범주를 넘어서는 시도를 했다.

1990년대 후반 작업 중 <변화> 연작의 연장선에서 철과 유리 같은 재료 및 산업재료 등에 불을 이용하여 상형문자와 같은 상을 반복적으로 세각하거나 투각하여 시간성과 수행성을 공간화한 <뿔뿔(Movement/Motion)>(2006~2007) 연작을 제작했다. 곧이어 기성 물건 그 자체가 지닌 재료적, 재질적, 형태적인 결을 거슬러 올라가 재조직화하는 <더딤과 기다림>(2007), <바래다>(2008) 연작은 자개장, 풍금, 상들리에, 도배지 등이 재료가 된 작업의 직접적 계기가 된다. 자개장 표면 자개를 모두 뜯어 공간 안에 재형상화하고 나무 장을 모두 분해하여 벽면에 나열한 <그린하이츠>(2011), 풍금을 분해하여 보이지 않던 시간을 길어 올린 <남겨진 (>)>(2013)와 구서울역사에서 수거한 상들리에를 분해하여 재설치한 <상들리에 공간 이용 방식 두 번째 -> 등은 물리적 결을 따르는 조형적 태도뿐 아니라 설치적인 확장을 보여준 작업이다. 또한 비슷한 시기 <물 이용 방식 3번째>(2015)와 같은 작업은 실생활에 나타난 제작 기술을 차용하고 변안한 것이다.

2014년부터 본격화된 도배지의 해체와 재설치 작업은 가장 널리 알려진 작업 중 하나이다. <인왕산이 보이는 남쪽 창이 있는 방>(2013)을 시작으로, 재개발 지역이나 (이주) 노동자들의 거주지의 도배지를 설치한 <교남>(2014) 연작, <가리봉 133>(2014)이 대표적이다. 낱낱이 분리된 도배지들은 시간과 장소의 증거로 전시장에 설치되고, 도배지에 남은 흔적은 사료로 보관되거나 글, 영상, 사진으로 기록되었다. 나아가 이 작업은 이 일과 연결된 사람을 만나는 일로 이어져 도배사, 도배 기술 명장, 건축 복원가 등과 교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도배를 둘러싼 생활사(生活史)와 문화사에 다가가고 그 협업의 결과물은 개인전 《마주하는 막》(2017)으로 갈무리하였다. 한편 이 작업은 교남, 가리봉에 이어 옥인, 보문, 청담, 창원(마산), 런던 등의 지역에서 수거한 도배지를 이용한 작업으로 이어졌다.

작가는 예술을 매개로 한 장소 특정한 설치 및 퍼포먼스를 작품(전시) 외에 프로젝트로 범주화하여 진행했고 대부분이 현장에서 일어났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2차례 진행한 <52동 106호>가 그 시작을 알리는 작업으로 타자와

만나고 타자들이 만나는 장(場)으로서 형성되었다. 공공지 및 사유지에 방치된 물건을 매개로 사람들과 관계 맺고자 했던 <주인을 찾습니다>(2010), 광주의 5·18을 주변부적 시각으로 해석하여 대화의 장으로 열고자 했던 <탄, 탄, 탄>(2017), 과거 서울대학교 농대 자리에서 쌀과 식구를 매개로 예술가들의 일시적인 공동체를 모색했던 <쌀의 독백: 일시적 식구>(2018), 교남동과 런던 처치스트릿을 연결하여 재개발 문제를 바탕으로 이주와 짓기의 가능성을 실험한 <운고잉 프로젝트 처치스트릿, 교남동 마주하기>(2022) 등으로 이어졌다. 그중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역촌동 한 주택을 임대하여 진행한 <운고잉 프로젝트 역촌 40>은 시공간의 물리적 결을 대상으로 살필 뿐 아니라 주변부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장소와 공간, 시간을 읽어냄으로써 그간의 방법론을 느슨하지만 총괄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동안 작가가 진행한 작품 및 프로젝트 등은 그것이 물리적 대상이든 장소든 사람이든 대상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이해가 바탕이 된다. 특정 주제나 의제를 부각하기보다 대상의 물리적 결을 따라 시간을 감수하고 대상에 간과된 내용을 몸으로 마주하는 일이 주를 이룬다. 관찰하는 대상의 제작 방식이 조각의 형식이 되고, 물리적인 특성이 조각의 양감이 되었고, 깎고, 만들고, 덜고, 붙이는 조각적 과정은 지워진, 간과된 ()를 찾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개인전 《앓음과 일어섬의 상(象)에 대하여》(2023)는 그간 자신의 전 작업을 되돌아보고 제작 방법 및 태도를 종합적으로 적용한 전시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시는 그간 작가가 주목했던 폐기된, 버려진 사물들이 이전에 있었지만 사라진 실재였다는 것, 근대를 거치면서 사라진 것, 간과된 것이었음을 재개념화한다. 그리하여 근대로부터 비롯된 인간과 삶의 변화를 앓음과 일어섬이라는 인간 행위 안에서 벌어지고 구현하려던 것의 상(象)이라 명명하고, <대지 속으로>(2023), <(>의 땅)>(2023), <두 개의 구축>(2023) 등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개요

「연기백의 (>)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작업 시작기부터 2023년까지의 전 작품 및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연구팀은 작품뿐 아니라 기존 원고, 작가 노트, 전시 이력 등을 목록화하는 작업과 함께 수차례 인터뷰를 진행하여 주요 작품과 프로젝트의 제작 동기 및 제작과정을 기술하는 해체 글을 작성하였다. 또한 필진으로 참여한 연구자들은 작가와 개별 미팅을 진행하고, 자료 및 작품 연구를 통해 전공과 관심사가 투영된 원고를 작성하였다. 미술사학자 진휘연의 「태도가 형태가 된 작가: 나의 자리에 타인을, 타인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조각가의 총체미술」, 미술평론가 최태만의 「시간의 복원과 복원된 기억을 기록하기」, 미학자 에치젠 토시야의 「변화를 지켜보고, 그것을 드러내다: 연기백의 조형 원리」, 책임 연구자 신양희의 「마주하기, 대면하기의 잠정적 총괄로서의 역촌 40」을 생산하였다. 작품 해체글과 연구글 뒤의 아카이브 섹션에는 주요 작품 목록, 주요 작가노트, 선정한 기존 평론, 전시이력을 제시하여 작가의 전체적인 작업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학력

- 200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200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대학원 졸업

개인전

- 2007 ‘遲遲’ 더딤과 기다림 (관훈갤러리, 서울)
2008 바래다 (관훈갤러리, 서울)
2009 52동 106호 (호기심에 대한 책임감 갤러리, 서울)
Coding conversation ‘세 개의 기둥’
(스페이스 집, 서울)
2011 Green heights (소마드로잉센터, 서울)
Green heights+주인을 찾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 한남, 서울)
2013 농축된 시간 (자하미술관, 서울)
2014 곳 다가서기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5 결집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16 ‘?’-그 누구 (서학동사진관, 전주)
2017 마주하는 막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2019 일시적 식탁 (프로젝트 스페이스 역촌 40, 서울)
2021 백오십점일평방미터
(프로젝트 스페이스 역촌 40, 서울)
2023 오늘의 작가-앉음과 일어섬의 때(象)에 대하여
(김중영미술관, 서울)

프로젝트

- 2001 project space Atmosphere 2人展
(project space Atmosphere, 서울)
2008 52동 106호-첫 번째
(서울대학교 52동 106호 실습장 內 조교실, 서울)
2009 52동 106호-두 번째
(호기심에 대한 책임감 갤러리, 서울)
52동 106호-세 번째 (서울대학교 51동 복도, 서울)
52동 106호-네 번째
(서울대학교 52동 106호 실습장 內 조교실, 서울)
2010 52동 106호-다섯 번째
(동소문로 1가 6번지 옥상, 서울)
2011 52동 106호-여섯 번째 (소마드로잉센터, 서울)
52동 106호-일곱 번째 (테이크아웃드로잉 한남, 서울)
2012 52동 106호-여덟 번째 (울산대학교 박물관 內
중정(中庭) 및 교수연구동, 울산)
2014 52동 106호-아홉 번째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5 52동 106호-열 번째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16 52동 106호-열 한 번째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2017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탄,탄,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광주)
2018 쌀의 독백: 일시적 식구
(경기상상캠퍼스(구)서울대 농대, 수원)

- 2018~2021 온고잉 프로젝트 역촌 40
(프로젝트 스페이스 역촌 40, 서울)

- 2020 52동 106호-열 두 번째
(프로젝트 스페이스 역촌 40, 서울)
2022 온고잉 프로젝트: 처치스트릿 & 교남동 마주하기
(런던, 영국)

선정 및 레지던시

- 2007 관훈갤러리 기획공모 선정
2010 소마 드로잉센터 4기 등록작가 선정
2011 테이크 아웃 드로잉 레지던시
2013 금천예술공장 5기 입주작가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프로젝트(시각예술) 선정
2014 금천예술공장 6기 입주작가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프로젝트(시각예술) 선정
2015 송은 아트스페이스 국내작가 개인전 선정
2016 국립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12기 입주작가
2017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프로젝트(시각예술) 선정
2018 김세중 청년조각상 수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작작센터
오픈크레이티브 입주작가
2020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준비지원 선정
2022 한국예술위원회 한국국제예술교류지원(시각예술) 선정
2023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시각예술) 선정

연기백 ()에 대한 미술사적 연구

작가	연기백
총괄기획자	박성환
책임연구원	신양희
글	진취연, 최태만, 에치젠 토시아, 신양희, 연기백
디자이너	배지선
영문번역	이슬기
일문번역	박성환
아키비스트	배진선
어시스턴트 아키비스트	강민수
도움	박서영, 이소임, 이예림, 최수연, 최희정
사진	가비스튜디오(서종현), 권오열, 김재범, 연기백, CJYART STUDIO(조준용), 최성욱, KC스튜디오, 황준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연기백, 아마도예술공간연구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조사-연구-비평>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